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가정 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습된 무기력과 사회적지지,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중심으로

홍정현¹⁾, 권현정, 윤성인, 이수정²⁾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본 연구는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의 가정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그 원인으로는 여러 요인들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의 학습된 무기력이 가정복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고, 사회적 지지자원이 있는 피해여성들의 경우 가정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여 사회적 지지요인을 예측치로 선정하였다. 또한 가정폭력위험성을 요인으로 선정하여 가정폭력의 수위에 따라서 원가정 복귀가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자로는 쉼터에 입소한 여성과 상담소에 찾아온 가정폭력피해경험이 있는 65명의 여성으로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학습된 무기력이 심할수록 가정폭력의 위험성이 심각할수록 가정 복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 다시 폭력적인 관계로 돌아가며 이는 가정폭력의 수위가 심각할수록 더욱 명백하였다. 가정복귀와 사회적 지지와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가정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학습된 무기력, 사회적지지, 가정폭력의 위험성 요인들과 가정복귀와의 접근을 시도하였는데, 학습된 무기력이 심할수록, 가정폭력이 심각할수록 피해여성들은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주요어 : 가정폭력, 가정복귀, 학습된 무기력, 사회적지지, 가정폭력위험성평가도구 (SARA)

- 1) 본 연구는 홍정현의 석사논문의 일부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됨
- 2) 교신저자: 이수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1622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산로 154-42 Tel: 031-249-9198, E-mail: suejung@hanmail.net

I. 문제제기

가정폭력의 고리를 끊어낸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어려운 일이란 점이 실무적으로 또한 학술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같은 가정폭력은 또한 혼인관계에서 매우 일반적인 양상인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이영숙(1986, 재인용)의 연구에서는 500쌍의 부부를 연구한 결과 42%가 남편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의 연구에서는 가벼운 폭력과 심각한 폭력을 모두 합쳐 남편의 폭력을 경험한 여성이 45.8%였다. Straus와 Gelles(1985)의 연구에서도 매년 여섯 쌍 중 한 쌍의 비율로 신체적인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되었고, 1/3의 아내들이 전체 결혼기간동안 최소 한 번 이상의 신체적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인데, 가정폭력이 만성화될 때 그 결과는 참담하다.

Hoff(1990)에 의하면 피해여성들은 신체적인 손상과 심리적 손상을 경험하여 폭력상황에 오래 방치될 경우에는 점점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비난의 화살을 자기 자신으로 돌려 낮은 자아상과 왜곡된 지각으로 괴로워하며 만성적인 우울감과 수치심, 분노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안고서 살아간다고 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매우 수동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이며 상황을 견디기 위해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거나 정신적인 질병으로 피폐해진다. Synder와 Fruchtman(1981)은 피해여성들은 일시적으로 가정을 떠나도 60%이상의 여성이 다시 가해자에게 돌아간다고 하였다.

이처럼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이 피학대의 관계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가정폭력에 오래 방치되는 경우 무기력을 경험하게 되어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에도 많은 피해여성들이 살기 위해 가정을 떠나 긴급피난처나 쉼터입소, 혹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 다른 곳에 일단 머물지만 그러다가도 결국 다시금 원 가정으로 돌아간다. 과연 이들이 가해자에게, 그들이 폭력을 당했던 가정이라는 장소로 돌아가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 같은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원 가정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으나, 이 연구에서는 피해여성들이 학대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심리학적 변수에 주목하였다. 특히 그중에서도 학습된 무기력이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원 가정 복귀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알아보고 주변의 조력, 즉 사회적지지 자원의 존재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학대관계를 종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였다. 특히 이와 같은 관련성이 가정폭력의 수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정폭력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의 개념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나라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법으로 제정하면서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였다. 먼저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에 있어서는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동법 제2조 제2호에서는 가정폭력의 구성원에 대해 규정하면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으로 범위를 한정 지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정폭력은 부부 간, 부모와 자녀 간, 친족관계 등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폭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규정한 가정구성원 중 부부 사이, 즉 남편이 아내에게 행하는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김운희(2003)는 남편에 의해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가정폭력이라고 하였다. 그 결과로 피해여성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는다고 하였다. 가정폭력은 신체적인 피해뿐 아니라 그에 수반된 언어적, 성적, 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가정폭력 가해자의 특성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손연주(1997)는 가정폭력 가해자는 알코올을 남용하고 정신적인 질병이 있으며 약물의 영향을 받거나 좌절감이 많고 일상적인 스트레스 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가해자의 개인적 요인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은 폭력에 노출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가능성이 크고 어린 시절 잘못된 학습의 영향과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으로 자제력이 미흡하다고 하였다. Walker(1984)는 폭력을 가하는 남성들의 약 67%에서 알코올 남용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Martin(1976)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또 다른 특성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들은 가정이 아닌 곳 예를 들면 교우관계, 직장관계 등 가정 밖의 영역에서는 폭력성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중성이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전형적인 행동패턴이라고 하였다. 가정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다른 영역에서는 폭력성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부터 종종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기도 한다.

Martin(1987)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성장환경이 대부분 열악하여 분노했을 때 어떻게 분노를 처리해야 하는지 혹은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배우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성인이 되어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분노하게 되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내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Rosenberg와 O'Leary(1981)에 의하면 가해자들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주 우울해 하고 밖에서는 자기주장을 잘 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가정 밖에서는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던 가해자는 가정으로 돌아오면 어린 시절의 학대경험이나 잘못된 학습 등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가한다.

3) 가정폭력의 반복성

가정폭력의 진행과정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더 자주 더 강하게'로 특징지을 수 있다. 한국 여성의 전화 조사에서는 첫 폭력의 시기는 결혼 6개월 이내가 65.5~70%로 거의 결혼초기에 남편에 의한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초기에 시작된 가정폭력은 더 빈번히 일어나고 뺄 한 대로 시작된 폭력은 물건을 던지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점점 더 그 강도가 세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그 특성은 Walker(1979)가 제시한 가정폭력 순환의 원리이다. 긴장이 쌓이는 단계, 학대사건 발생단계, 화해단계의 세 단계로 이루어져 순환의 원리를 가지고 반복된다고 하였다.

긴장이 쌓이는 단계에서는 스트레스가 적절하게 외부로 표출되지 못하면 긴장이 고조되어 향후 폭력행위로 발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학대사건발생단계로 참았던 감정과 갈등이 밖으로 폭발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는 화해단계이다. 가해자는 폭행이후 감정이 누그러지면 자신의 폭력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아내에게 사과를 한다. 이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으로 해결하지 않겠노라 다짐을 하고 피해자도 폭력행위와 사과를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다시 결혼생활을 이어간다. 그러나 다시 학대행위는 지속되고 가정을 떠나지 않은 아내는 학대의 순환의 원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학대는 점점 더 잦고 강도가 심해진다.

한국여성개발원(1993)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폭력에 노출된 부부들이 초기에는

분노를 바로 표출하지 않고 긴장이 쌓이는 단계 즉, 첫 번째 단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그리고 폭행을 행한 이후 재빨리 사과하고 화해하나 폭력 행위가 빈번해지기 시작하면 세 단계의 주기가 빨라지게 되면서 세 번째 단계인 화해의 단계가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긴장하고 폭발하게 되는 두 단계만이 남게 된다고 하면서 학대의 악순환을 설명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폭력이란 배우자에 의해 반복적, 계획적, 의도적으로 폭행을 당해 그 결과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동시에 가정폭력은 순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경향이 특징이다.

4) 가정폭력 실태

한국 여성의 전화 통계(1983) 가정폭력의 실태에 대한 조사에서 결혼 후 한 번 이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여성은 42.2%의 비율이고, 김재엽(1998)의 연구에서는 부부폭력 발생률은 31.4%로서 전체 1,300만 쌍의 부부 중에 약 408만 쌍의 부부가 1년에 적어도 1회 이상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부부 10쌍 중 3쌍 이상이 부부폭력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부폭력이 한국사회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신체적 영향으로는 한국여성개발원(1993)의 연구에서 65명중 65.4%가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48.1%가 타박상, 17.3%가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명이나 신경마비, 질식으로 인한 기절, 병원입원 등 매우 심각한 영향도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김익기외, 1992)에서 결혼 후 지금까지 손, 발, 물건으로 닦치는 대로 두들겨 맞는 등 심한 폭력을 경험한 67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상해를 알아본 결과 85.1%의 응답자가 상처·타박상·골절상 등의 신체적 영향을 호소하였다. 가정폭력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실상은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에 매우 만연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정폭력실태조사(2013, 여성가족부)에 의하면 가정폭력이 처음 시작된 시기는 결혼 후 5년 미만인 경우가 62.1%이고 결혼 후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2.2%로 결혼초기에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정폭력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관해 살펴본다면 여성가족부(2004)의 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연령이나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전 연령층에 폭력이 분포하고 있고, 특히 30-40대에서, 고등학교 교육수준을 가진 계층에서 아내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정폭력실태조사(2013, 여성가족부)에서는 35세 이상 50세 미만이 45.1%로 가장 많고 결혼기간은 6년 이상 10년 미만이 가

장 많았다. 가정폭력은 폭력이 발생되고 나면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는 점점 흉포화 되어 가고 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경찰청(2007)이 발표한 2006년 가정폭력 사건의 유형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사범이 2005년에는 12,775명, 2006년에는 12,837명으로 0.5% 증가하였다. 행위의 수단과 강도도 심각해졌다. 맨손으로 때리는 단순폭력은 줄고, 둔기 등 무기사용, 감금하고 협박하는 사례는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신경수, 2007, 재인용).

이러한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일생 전반에 걸쳐 손상을 입는다. 폭력으로 인한 이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5)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성

우리는 학대받는 여성에게 ‘왜 가정을 떠나지 못 하는가’, ‘왜 그렇게 결정하지 못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 Gelles(1976)의 조사에서는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 41명 중 78%가 그들의 남편에게로 돌아갔고, Synder와 Fruchtman(1981)의 연구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하였던 피해여성들의 거취에 대해 2개월 후 추적 조사하였더니 119명 중 60%가 배우자에게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Strube와 Barbour(1983)의 조사에서는 98명 중 38%가, 1984년 조사에서는 251명중 약 30%가 그들의 가정으로 돌아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국여성의 전화(1995) 연구에서 컴퓨터 이용여성 70명이 집으로 귀가하여 총 90%가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폭력적인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앞서 언급하였던 Walker(1979)의 세 단계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가해자들은 폭력을 행사한 후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희망을 건다. 그러나 얼마 후 폭력은 다시 시작된다. 이러한 폭력의 주기를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 피해자는 점점 폭력으로부터의 탈출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가능하다고 여기지 않게 된다. 처음에는 아이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정을 쉽게 떠나지 못하지만 폭력피해가 반복되고 이에 습벽화 되면 아이들이 성장하여 가정을 떠난 이후에도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학대관계를 떠나지 못하게 된다.

류경숙(2004)에 의하면 폭력을 당하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은 자아개념과 목적 지향성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또한 이상규(2001)는 학습된 무기력이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임을 지적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회적 고립도 관계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데, 이 같은 상황이 나아가

학대받은 여성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소외감과, 낮은 자존감을 느끼게 되고 사고력과 에너지를 모두 소진시킬 정도의 강력한 공포로 약물과 알코올을 남용하거나 자살을 시도하고 신체화 질환을 겪는다고 하였다(신은주, 1995). 채규만(1999)은 상습학대피해 여성은 자신에 대한 무력감과 불신으로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자신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Stark와 Flitcraft(1988)는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은 심각하게 피해를 경험하고 자살을 기도하거나 신체화 질환을 나타내기도 하며, 약물과 알코올 남용을 보일 수 있는데,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약 20%에서 우울·불안을 비롯한 유사 정신병(pseudopsychiatric illness)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Hoff(1990)는 피해여성들은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소진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지속적이면서도 심각한 폭력은 피해여성들에게 정신적 손상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Warren과 Lanning(1992)은 피해여성들은 가정에서 떠나지 않은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비난하고 낮은 자아상으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폭력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낀다고 한다. 또한 폭력에 대한 통제감 상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 김익기(1991)는 폭력을 당하는 피해여성은 매사에 의욕부진과 부정적 자아상으로 인해 외부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이런 이유로 조력을 구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박애경(2005)은 나아가 가정폭력은 피해여성의 인지, 심리, 대인 관계적 측면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대처할 수 있는 자원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을 방해한다고도 하였다.

이렇듯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신체, 정서, 심리, 사회적인 전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벗어나고 싶으나 벗어날 수 없는 피해여성들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소외감과 사회적 고립 속에 갇혀 버리게 된다.

2. 학습된 무기력 이론

학습된 무기력 이론은 애초 Seligman(1975)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초기에는 다양한 개인차를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Abramson 등(1978)이 귀속적 틀(attributional frame)을 도입하여 초기의 이론을 보완하였다(박미은, 1998). Seligman(1967)은 개인이 혐오적인 사건을 만나게 되면 개인의 대응으로는 미래 상황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예측에서 무기력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즉 반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비유관적(non-contingent)인 예측에서 무기력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Abramson 등(1978)은 인간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반응에 대한 결과가 있을 유관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해도 자신의 반응이 적절한 결과를 내지 못한다고 인식하면, 반응하려는 동기자체가 사라지게 되고, 반응으로 결과가 통제된다는 사실을 학습하기 어려워진다고 하였다. 즉 반응과 결과 간에 비유관성(무관성)지각은 동기와 인지, 그리고 정서적인 손상을 초래한다.

Dweck과 Reppucci(1973)는 학습된 무기력의 일반적인 증상으로 자신감 결여와 우울, 부정적 인지와 수동성, 통제력의 결여와 지속성의 결여, 과시욕의 결여와 책임감의 결여라고 하였다. 학습된 무기력은 인지와 동기, 감정과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복합적인 손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일한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사회적인 기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Walker(1979)는 학습된 무기력은 일련의 인지와 동기, 감정과 행동의 측면에서의 복합적 손상을 말한다고 하면서 심리사회적인 기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신기명(1992)은 통제 불가능한 사건 그 자체가 무기력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사건 자체보다 반응으로 상황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관적인 지각이 무기력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즉 객관적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의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여성들의 인지형태를 수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Seligman(1967)은 한번 형성된 무기력은 상황이 변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인지의 수정을 통해 치료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간은 복잡한 심리반응을 가지므로 설명의 부분에서 한계가 있었다. 첫째, 상황에 대한 통제 불가능성 기대만으로는 피해여성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정서적 결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인간은 통제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은 전혀 무기력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학습된 무기력 이론은 무기력발생의 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으나 개인과 상황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Abramson 등(1978)이 귀인 틀(attributional frame)을 도입하여 보완하였고 수정된 이론에서의 특징은 통제 불능을 느끼는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서 개인들의 무기력정도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학습된 무기력의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이 반응에 대한 결과를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지각하는데서 생기고 피해여성들의 정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듯 피해여성들의 정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학습된 무기력이 가정 복귀 유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본 연구에서 알아보기를 원한다.

3. 사회적 지지

1970년대 이래로 사회적 지지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Cohen과 Wills(1985)는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란 사건으로 인해 겪게 되는 부정적 정서반응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자원이라고 하였다. 박지원(1985)은 사회적 지지에 대하여 개인이 겪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심리적 부적응을 도와주어 좌절을 극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에 대한 노출에서 보호하고 문제해결력을 강화하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렇듯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심리적인 부적응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행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Aneshensel과 Stone(1982)은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지지를 받는 사람은 부정적인 스트레스의 적응력이 훨씬 강화되고 지지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적응력에 손상을 입는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의 개념을 한 가지로 정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의 세 가지를 고려하여 개념에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지지의 기능과 역할이다. 이것은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와 완충효과에 대한 것이다. 먼저 '주효과'(main effect)는 부정적 정서반응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직접효과'라고도 하는 것으로 개인의 스트레스 높낮이와 상관없이 사회적 지지가 부정적 정서반응을 억제한다는 것이고 '완충효과'(buffering effect)는 낮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적응을 하는 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으나,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부정적 정서반응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지지의 범위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것이다.

Cohen과 Wills(1985)은 사회적 지지를 구조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으로 구분하면서 관계망의 크기나 접촉의 빈도를 의미하는 것이 구조적인 측면, 활용 가능한 자원들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을 의미하는 것이 기능적 측면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지지자원이 존재한다고 모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House(1981)는 객관적 지지자원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개인이 그 지지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주관적 지각이 있어야만 진정한 지지가 된다고 하였다. Kessler(1985) 역시 지각된 지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위기상황의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조언이나 도움은 그 개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각이 있는 경우 도움을 제공하라고 한다.

셋째, 어떤 지지를 받았는지에 대한 것이다. Cohen과 Hoberman(1983)은 사회적 지지를 유형적, 평가적, 자아 존중감, 소속감의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었다. 유형적 지지란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인 측면에서 실질적 지원을 하는 것이고, 평가적 지지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나 충고를 받는 것을 말한다. 자아 존중감 지지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이 평가받는 것을 말하며, 소속감 지지는 다른 사람과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지원(1985)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정서적 지지는 애정과 신뢰, 관심과 존경, 경청하는 행위이고, 정보적 지지는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유용하고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물질적인 지지는 일을 도와주거나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등 돕는 행위를 말한다. 평가적 지지는 개인의 행위를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고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등 심리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지지가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데 기여한다고 한다면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하는 피해여성들의 가정복귀와도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다음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박미은(1998)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매개효과는 폭력의 정도와 빈도가 높고 과거 학대력이 있는 집단에서 무기력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Finn(1985)은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은 폭력경험이 없는 여성들에 비해서 겪는 스트레스가 상당하므로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적절한 개입과 교육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폭력피해여성들은 문제해결의 의지가 약하고 폭력에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도 낮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로서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15명의 쉼터 거주자를 조사한 Mcauslan(1992)의 연구에서는 폭행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제공된 지지보다 지각된 지지에 의해 긍정적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적인 위로는 지각된 지지이나 관계를 정리하라는 조언은 유용하지 않은 지각된 지지로 나타났다. Silver와 Wortman(1980)도 학대피해자들을 광범위하게 선정하여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친밀한 관계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존중받고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들게 하여, 우울과 무기력을 감소시켜 피해회복과 사회재적응

을 돕는데 긍정적인 자원이 된다고 하였다.

Gelles와 Straus(1988)의 조사에서 여성들이 받은 도움을 살펴보면 경미한 폭력은 46.2%, 심각한 폭력은 69.8%의 여성들이 도움을 받았다. 특히 심각한 폭력을 경험한 149명의 학대여성들의 43.8%가 친척, 친구, 이웃 등의 비공식적인 체계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37.9%가 상담가, 치료자, 의료전문직, 종교인 등의 대인서비스체계로부터, 15.4%가 변호사, 경찰 등의 법적인 체계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이들 중 과반수이상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여성개발원(1993)의 연구에서 52명의 연구대상자가 상담소를 통해 도움을 받은 경우가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친정이나 시댁, 친구나 이웃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가정폭력피해 여성의 폭력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고 피해회복과 사회 재적응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많은 연구들에서 알려져 왔다. 학대받는 아내들에게도 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사회적인 지지를 통해 자신이 존중받고 보호받는데 도움을 준다.

4.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배우자와의 폭력적인 관계, 즉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코자 하는 것이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학대 관계를 종결하는 데에 어려움을 유발하겠으나 그중에서도 만성적인 폭력으로 인한 학습된 무기력의 영향력이 사회적지지 등과 함께 가정복귀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확인코자 하였다. 또한 가정폭력의 수위가 이들 관계에 또 다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관찰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가정폭력피해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쉽터에 입소해 있거나 상담을 받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짧은 연구기간 안에 최대한 대상자 수 확보를 하기 위해 쉽터뿐만 아니라 상담소도 대상으로 삼았고, 쉽터의 연락처나 주소는 일반에 공개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구자가 주로 활동하는 경기서부권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쉽터나 상담소에서 피해여성들의 심리적

안정과 신변보호 등의 사유로 설문지에 응답하는 것이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응답하는 방식의 설문지 응답은 거절하거나 직원들이 응답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기관들은 제외하면서 대상자 확보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피해자 직접 응답을 승인한 쉽터와 상담소에서 설문지를 수거하였으나, 입소한 여성의 수가 매우 적어 연구자가 방문한 적이 있거나 피해자지원을 위해 연계한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아 인천, 의정부, 수원 지역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최종적으로 경기서부권역(부천여성의 집, 시흥여성 쉽터, 안산여성 쉽터, 경기서부해바라기 센터)와 인천(인천은혜의집), 의정부(의정부여성 쉽터), 수원(가톨릭여성의 집, 수원가정법률상담소)지역에서 가정폭력피해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015년 12월에서 2016년 1월까지 약 2개월간 실시하여 총 66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였고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1부를 제외한 65명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가설

본 연구는 가정폭력피해여성이 폭력 이후 가정으로 복귀하게 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학습된 무기력과 사회적지지, 가정폭력의 위험성이 가정폭력피해여성의 가정 복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학습된 무기력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가정으로 복귀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사회적 지지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가정으로 복귀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가정폭력이 심각할수록 가정폭력피해여성이 가정으로 복귀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조사도구

1) 학습된 무기력 진단척도(Learned Helplessness Scale)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피해여성의 학습된 무기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신기명(1990)이 개발하고 피해여성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수정 보완한 박미은(1998)의 연구에서 가져와 사용하였다. 신기명(1990)은 Seligman & Mayer의 학습된 무기력이론에 근거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문항의 구성은 한국판 캘리포니아 심리검사의 책임성과 자제성의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수동성, 통제력 결여, 자신감 결여, 지속성 결여, 우울 및 부정적 인지, 과시욕 결여, 책임성 결여의 7개 하위요인으로 총 45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되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거의 안 그렇다'(2점), '가끔 그렇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를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피해여성의 학습된 무기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척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 α =.974로 높게 나타났다.

2) 사회적 지지척도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 중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아내폭력은 부정적인 사건의 하나에 해당되어 피해여성들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가정복귀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으로는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의 총 25 문항으로 구성되어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되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거의 안 그렇다'(2점), '가끔 그렇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를 주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 척도의 문항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 α =.972로 확인되어 높은 내적일관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3) 가정폭력의 위험성 평가도구 SARA(Spousal Assault Risk Appraisal Guide)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해 가정폭력위험성 평가도구인 SARA를 사용하였다. SARA는 남성 가해자를 대상으로 Kropp, Hart 등(1994)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되어 Kropp 등(2000)에 의해 개정되었다. 이 도구는 가정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대와 관련된 위험요인들을 심사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가족 구성원이 가해자로부터 위협을 느낄 정도인지를 심사할 수 있다. 가해자의 범죄력이나 대인관계의 문제, 아동기 피해경험 등의 개인적 특성요인을 포함하고 실제로

행한 가정폭력의 양상 등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한다. 이 도구는 2개의 PART로 구성되어 PART 1은 폭행/보호관찰위반/피해경험/약물남용 등의 위험요인으로 구성하였고, PART 2는 배우자 폭행/성폭행/원재의 범죄 등을 포함하는 위험요인들로 구성된다.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없음(0점), 부분적 또는 아마도 해당함(1점), 확실하게 해당함(2점)으로 총점은 0~4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박종관, 2015). 이 검사 도구는 이수정 외(2008)의 연구에서 신뢰도가 .80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도 각 문항 간 신뢰도 측정결과 Cronbach α =.850으로 확인되어 높은 내적일관성을 가진다 하겠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을 거쳐 SPSS를 사용하였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설문지 응답을 토대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습된 무기력, 사회적지지, 가정폭력의 위험성(SARA)을 독립변수로 놓고 가정복귀유무를 종속변수로 두어 가정복귀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정복귀유무는 '가정에 복귀한 적이 있다'는 문항에 예, 아니오로 응답하게 함으로써 측정하였는데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경험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이다. 이는 쉼터에 입소한 여성의 경우 가정에 복귀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모두 아니오에 답함으로써 가정복귀에 대한 응답이 한쪽으로는 치우칠 수 있어 쉼터와 상담소에 내방한 피해여성이 대상자로서 혼재되어 있는 만큼 이들을 다 포괄하면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복귀유무를 다룰 수 있는 질문으로 위와 같은 질문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었다.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들의 각 문항 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문항 간 신뢰도를 살펴보고 각 변인들 간의 관계는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각 변인들이 가정 복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로지스틱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고 영향력이 더 큰 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회귀분석(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검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피해여성의 연령을 살펴보면 40대가 35.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30.8%(20)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연령에서는 40대가 46.2%(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대가 23.1%(15)였다. 피해여성과 배우자 모두 40대인 경우 가장 많은 가정폭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피해여성의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이 38명으로 (59%)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역시 고등학교 졸업이 36명으로 (55%)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형태에서는 기혼이 67.7%(44)로 가장 많고 이혼(가정폭력을 경험하여 가정에 복귀한 경험이 있는 여성)이 12.3%(8)이다. 기혼인 경우에만 폭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이혼하거나 기타(동거와 별거포함)의 경우에도 가정폭력을 경험함으로써 혼인의 형태를 넘어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진다. 결혼기간은 5년-10년이 26%(17)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20년 이상의 경우에도 21%(14)로 나타나 결혼기간 전반에 폭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비교적 혼인 초기에 가정폭력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대 기간에서는 5년 미만이 36.9%(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년 이상 학대를 경험한 여성도 9.2%(6)의 비율로 나타나 장기간 학대를 경험한 여성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 수입은 100-200만원이 56%(15), 100만 원 이하가 30%(8)로 확인되어 고소득 가정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유무에서는 아니오가 58.5%(38)로, 예 41.5%(27)에 비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업주부로서 살고 있는 비율이 더 높다고 할 것이다. 가정으로의 복귀빈도는 1회와 3회가 각각 21.7%(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6회 이상도 16.7%(10)로 나타나 상당수의 여성들이 빈번하게 가정으로 복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으로 복귀유무에 예(복귀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2.0%(50), 아니오는 18.0%(11)로 나타나 가정으로 복귀한 적이 있는 여성의 비율이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할 것이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아내 연령	20대	4	6.2
	30대	20	30.8
	40대	23	35.4
	50대	15	23.1
	60대 이상	3	4.6
배우자 연령	20대	3	4.6
	30대	11	16.9
	40대	30	46.2
	50대	15	23.1
	60대 이상	6	9.2

결혼형태	기혼	44	67.7
	이혼	8	12.3
	재혼	9	13.8
	기타	4	6.2
결혼기간	5년 미만	11	17
	5-10년	17	26
	10-15년	13	20
	15-20년	10	15
	20년 이상	14	21
학대기간	5년 미만	24	36.9
	5-10년	18	27.7
	10-15년	10	15.4
	15-20년	7	10.8
	20년 이상	6	9.2
직업유무	예	27	41.5
	아니오	38	58.5
가정복귀빈도	1회	13	21.7
	2회	6	10
	3회	13	21.7
	4회	9	15
	5회	9	15
	6회 이상	10	16.7
가정복귀유무	예	50	82
	아니오	11	18

2. 분석결과

1)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척도들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평가방법으로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내적일관성은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로서 평가되어지고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내적일관성이 높다. Cronbach's α 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높을수록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통상의 보수적인 기준으로 Cronbach's α 계수를 0.60 이상을 채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표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학습된 무기력 .97, 사회적 지지 .97, 가정폭력 위험성 .85로 매우 높은 내적일관성이 나타났다.

<표 2> 각 척도의 신뢰도 분석

요 인	문 항	문항수	Cronbach's α
-----	-----	-----	---------------------

학습된 무기력	자신감결여	1-10	10	.920
	우울 및 부정적 인지	11-20	10	.938
	수동성	21-25	5	.890
	통제력 결여	26-30	5	.875
	지속성 결여	31-35	5	.917
	과시욕 결여	36-40	5	.906
	책임성 결여	41-45	5	.853
전 체	1-45	45	.974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1, 6, 7, 9, 10, 12, 16, 21, 24	9	.937
	정보적 지지	8, 14, 15, 17, 18, 22, 25	7	.940
	물질적 지지	3, 13, 20, 23	4	.783
	평가적 지지	2, 4, 5, 11, 19	5	.901
전 체	1-25	25	.972	
가정폭력 위험성 (SARA)	범죄력	1-3	3	.610
	심리사회적 적응	4-10	7	.762
	배우자 폭행경험	11-17	7	.746
	현재 혐의 범죄	18-20	3	.617
	전 체	1-20	20	.850

2)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학습된 무기력과 사회적 지지, 가정폭력의 위험성의 요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습된 무기력과 사회적지지 간은 $r=.386(p<0.01)$ 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학습된 무기력과 가정폭력의 위험성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각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

	학습된 무기력	사회적 지지	가정폭력의 위험성 (SARA)
학습된 무기력	Pearson 상관계수	1	
	유의확률 (양쪽)		
	N	65	
사회적 지지	Pearson 상관계수	.386**	1
	유의확률 (양쪽)	.002	

	N	65	65	
가정폭력의 위험성 (SARA)	Pearson 상관계수	.172	-.016	1
	유의확률 (양쪽)	.171	.899	
	N	65	65	65

** $p<0.01$

3) 가설검증

가. 학습된 무기력이 가정 복귀에 미치는 영향

학습된 무기력이 가정폭력피해여성의 가정으로의 복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학습된 무기력을 독립변수로 놓고 가정으로의 복귀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Walds=6.365(p<.05)$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계수가 양(+)으로 학습된 무기력은 가정으로의 복귀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때 $Exp(B)=1.036$ 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모형은, $\chi^2=8.426(p<.01)$ 로 유용하다고 할 수 있었다. 즉, 학습된 무기력 값이 1만큼 커질수록 귀가 할 승산이 1.036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학습된 무기력이 심할수록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가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로서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

<표 4> 학습된 무기력이 가정 복귀에 미치는 영향

	B	S.E.	Walds	자유도	유의확률	Exp(B)
학습된 무기력	.036	.014	6.365	1	.012*	1.036
상수항	-2.359	1.471	2.571	1	.109	.094
$\chi^2=8.426(p=.004)$, 복귀 : no=0, yes=1						
* $p<.05$ ** $p<.01$ *** $p<.001$						

나. 사회적 지지가 가정 복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가정으로의 복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수로 하고 가정으로의 복귀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chi^2=.968(p>.05)$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복귀와 사회적 지지와의 관

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가설 2. 사회적지지 정도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가정으로 복귀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학습된 무기력 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고 기존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학습된 무기력을 감소하거나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가 학습된 무기력을 감소시켜 가정복귀를 하지 않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 간 상호작용 효과는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표 5> 사회적 지지가 가정 복귀에 미치는 영향

	B	S.E.	Walds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사회적지지	.018	.019	.921	1	.337	1.018
상수항	.526	1.049	.251	1	.616	1.691

$\chi^2=.968(p=.325)$, 복귀 : no=0, yes=1

*p<.05 **p<.01 ***p<.001

다. SARA로 측정된 가정폭력의 위험성이 가정 복귀에 미치는 영향

가정폭력의 위험성(SARA)이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가정으로의 복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가정폭력의 위험성(SARA)을 독립변수로 두고 가정으로의 복귀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Walds=3.348(p<0.1)로 .05수준에서는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지만 알파 수준을 .10까지로 넓게 해석하자면 표본이 커질 경우 영가설을 기각할 가능성이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결과가 영가설을 기각하였다고 인정한다면 가정폭력의 위험성(SARA) 값이 한 단위 커질수록 귀가 할 확률이 1.107배 커진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표본의 수를 늘인 뒤 후속적인 가설검정을 집행할 필요가 있겠다.

<표 6> 가정폭력의 위험성(SARA)이 가정 복귀에 미치는 영향

	B	S.E.	Walds	자유도	유의확률	Exp(B)
가정폭력 위험성(SARA)	.102	.056	3.348	1	.067†	1.107
상수항	-.381	1.021	.139	1	.709	.683

$\chi^2=3.856(p=.050)$, 복귀 : no=0, yes=1

† p<.10 *p<.05 **p<.01 ***p<.001

라. 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 비교를 위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각 요인들의 위계적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모델 1은 가정폭력 위험성을 투입한 결과로 $\chi^2=3.856(p>.05)$ 으로 회귀식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가정폭력 위험성, 사회적 지지를 투입한 결과 $\chi^2=4.956(p>.05)$ 으로 역시 회귀식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모델 3은 가정폭력 위험성, 사회적지지, 학습화된 무기력을 투입하였으며, 가정폭력 위험성 Walds=4.220(p<.05), 학습된 무기력 Walds=6.174(p<.05)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폭력 위험성 값이 한 단위 커질수록 귀가할 확률이 1.186배 커지고 학습된 무기력 값이 한 단위 커질수록 귀가할 확률이 1.051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Nagelkerke의 R²은 .334로 종속측정치의 33.4%의 변인이 이들 예측치들로 설명이 되었다. 독립변수의 영향력 값인 Walds는 (B/S.E.)²의 값으로 학습된 무기력은 6.174, 가정폭력 위험성은 4.220으로 학습된 무기력이 더 큰 영향력을 지니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원 가정으로의 복귀에는 학습된 무기력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각 요인들의 위계적 로지스틱회귀분석

	모델1			모델2			모델3		
	B (S.E)	Wals	Exp(B)	B (S.E)	Wals	Exp(B)	B (S.E)	Wals	Exp(B)
(상수)	-.381 (1.021)	.139	.683	-1.616 (1.611)	1.006	.199	-6.184 (2.744)	5.081	.002
가정폭력위험성	.102 (.056)	3.348	1.107	.108 (.059)	3.414	1.114	.171 (.083)	4.220*	1.186
사회적지지				.021 (.020)	1.043	1.021	-.012 (.027)	.200	.988
학습화된무기력							.050 (.020)	6.174*	1.051
χ^2	3.856(p=.050)			4.956(p=.084)			13.938(p=.003**)		
Nagelkerke	.100			.128			.334		
R-제곱									

*p<.05 **p<.01 ***p<.001

V. 결론 및 논의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노력으로 가정폭력특례법을 제정되고 가정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날이 법안의 수정을 거듭하고 있으며 피해여성들을 위한 상담소와 쉼터, 주거지원 사업, 진료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아직도 너무나 많고 여전히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심리적 손상을 입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신체적인 질병에 이르기도 한다. 피해여성들은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폭력의 순간을 피해 집을 나오지만 결국 독립하지 못한 채 또 다시 원 가정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왜 가정으로 다시 돌아 가는가'에 대해 궁금증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가정복귀의 원인이 무엇인지 의문점을 가지고 원인요인을 탐색하였다. 그중에서도 학습된 무기력과 사회적 지지,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중점을 두고 이 요인들이 가정 복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었던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내의 경우 30-40대가 주를 이루었고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았다. 남편의 경우 40대가 가장 많았고 역시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자는 대부분이 기혼상태였고, 이혼인 경우에도 폭력피해가 발생하거나 동거와 별거 중인 경우에도 폭력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혼인의 형태를 넘어서 가정폭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결혼기간은 5-10년이 26%로 결혼초기에 가장 많은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소득은 100-200만원이 56%로 나타나 고소득 가정은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학대기간은 5년 미만인 36.9%로 가장 많았다.

둘째, 원 가정 복귀를 예측하는 변수로서 선택된 세 변인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았으나 그중 학습된 무기력의 경우 Walds 값이 6.365($p < .05$)로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하였다. 즉 학습된 무기력은 가정으로의 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학습된 무기력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폭력적인 가해자와의 관계로 복귀할 확률이 1.036배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만성적인 가정폭력의 악순환으로 무기력이 심하게 진행된 여성들의 경우 스스로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결과적으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조차 시도하기를 포기함으로써 학대의 관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하여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체제에서는 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의 회복, 그로 인한 새 출발로의 동기화를 도모하기 위한 여

러 가지 시도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지지의 정도는 예상과는 달리 폭력적인 관계로의 복귀를 단절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가정으로 복귀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2는 지지되지 못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정적 생활사건인 가정폭력의 충격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인 지지가 가정복귀를 하는데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런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연구 대상자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쉼터여성의 경우 애당초 사회적인 지지자원이 매우 빈약하였을 것을 고려한다면 다음번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설 2는 재검이 될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가정폭력의 위험수위는 .05수준에서는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나, 유의수준을 .10까지로 넓혀서 생각을 한다면 사례수가 거절 경우 영가설을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즉 SARA로 평가된 가정폭력의 위험성은 가정으로의 복귀에 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큰데, 즉 폭력의 수위가 심각하고 만성적일수록 오히려 가정을 떠나기보다는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자료 안에서도 가정폭력의 위험 수위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폭력적인 관계로 복귀할 가능성이 1.107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된 무기력과 함께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왜 학대적인 관계를 떠나지 못하고 그 속에 주저 않아 어떤 시도도 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설명해준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이 연구에 참여하였던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대부분 쉼터를 통해 연구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대다수의 여성들에게 연구의 결과를 그대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한계점은 참여자의 수가 너무 적어 단순 주효과 이외에 상호작용 효과 등이 전혀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만일 사례 수가 훨씬 커진다면 변수들 간 다양한 상호관련성에 대한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예측치들과 가정복귀 여부의 인과관계가 현재의 분석방법으로는 충분히 입증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는 역시 표본의 크기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수를 충분히 늘려 통계적으로 인과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다.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질병에 이르기도 한다.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2004, 2013)에서 피해여성들의 93.5%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신과적인 진료와 더불어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여성

이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 폭력적인 관계를 단절하도록 동기화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997). 법률 제5436호.
- 김운희. (2003).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1.
- 김익기, 심영희, 박선미, & 김혜선. (1991).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시의 남편의 아내폭력 현황을 중심으로. 연구총서, 1991(5), 1-217.
- 김재엽. (1998). 한국 가정폭력 실태와 사회계층 변인과의 관계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5, 133-155.
- 류경숙 (2004).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 구타 당하는 아내를 중심으로. pp. 56-58.
- 박미은. (1998). 매맞는 아내들의 학습된 무기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애경 (2005). 가정폭력의 실태와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아내에 대한 폭력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35, 110-115.
- 박종관 (2015).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 교정시설 재부역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기명. (1990). 학습된 무력감 진단척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기명. (1992). 학습무기력. 서울: 배영사.
- 신경수 (2007).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남편에 의한 아내 학대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은주 (1995). 아내학대에 대한 페미니스트 접근에 관한 사회사업적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혜숙, & 손연주. (1997). 구타당하는 여성들의 심리적 특성 연구. 여성학연구, 7(1), 65-89.
- 이상규 (2001).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정, 이혜선, 이수경, 김현정. (2008). 아내학대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1), 79-98.
- 이영숙 (1986). 한국 도시가족 부부간의 지위관계와 부인학대에 관한 연구. pp. 46-56.

- 여성가족부 (2004). 한국가정폭력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3). 2013년 가정폭력실태조사.
- 채규만 (1999).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적 접근방법. 가정폭력 상담을 위한 워크샵. 한국 여성상담센터.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여성의전화, “전화상담조사통계”, 1983.
- 한국여성의전화 위음(1995), 「여성상담과 여성복지」, pp. 151-73.
- 한국여성의전화 (2015). 2015년도 9월 총 상담 통계.
- 한국여성개발원 (1993). 「가정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구」 pp. 43-75
- Aneshensel, C. S., & Stone, J. D. (1982). Stress and depression: A test of the buffering model of social support.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9(12), 1392-1396.
- Abramson, L. Y., Seligman, M. E., & Teasdale, J. D. (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Critique and re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1), 49.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17.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Dweck, C. S., & Reppucci, N. D. (1973). Learned helplessness and reinforcement responsibility in childr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5(1), 109-128.
- Finn, J. (1985). *The stresses and coping behavior of battered women*. Social Casework.
- Gelles, R. J., & Straus, M. A. (1988). *Intimate violence*. Simon & Schuster.
- Gelles, R. J. (1976). *Abused wives: Why do they sta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 Hoff, L. A. (1990). *Battered Women as Survivors*, London : Routledge.
- Hoff, L. A. (2016). *Battered women as survivors*. Routledge.
- Kessler, R. C., Price, R. H., & Wortman, C. B. (1985). Social factors in psychopathology: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process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6(1), 531-572.
- Martin, D. (1976). *Battered Wives*. New York: Pocket Book.
- Martin, G. (1987). *Counseling for family violence and abuse* (Vol. 6). W Publishing Group.
- McAuslan, P. (1992). *The discovery and disclosure of wife abuse, and battered women's perceptions of support*. University of Guelph.
- Overmier, J. B., & Seligman, M. E. (1967). Effects of inescapable shock upon subsequent escape and avoidance responding. *Journal of Comparative and Physiological Psychology*, 63(1), 28.
- Rosenbaum, A., & O'leary, K. D. (1981). Marital violence: Characteristics of abusive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1), 63-88.
- Snyder, D. K., & Fruchtman, L. A. (1981). Differential patterns of wife abuse: A data-based typolog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6), 878-899.
- Stark, E., & Flitcraft, A. (1988). *Violence among intimates*. In *Handbook of family violence* (pp. 293-317). Springer US.
- Strube, M. J., & Barbour, L. S. (1983). The decision to leave an abusive relationship: Economic dependence and psychological commi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85-793.
- Straus, M. A., & Gelles, R. J. (1985). *Is family violence increasing? A comparison of the 1975 and 1985 National Survey Rates*.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San Diego, California.
- Seligman, M. E. (1975). *Helplessness: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WH Freeman/Times Books/Henry Holt & Co.
- Silver, R. L., & Wortman, C. B. (1980). *Coping with undesirable life events. Human helplessness: Theory and applications*, 279-375.
- Walker, L. E. (1984). The battered woman syndrome study. In D. Finkelhor, R. J. Gelles, G. T. Hotaling, & M. A. Straus (Eds.), *The dark side of families* (pp. 31 - 48). Beverly Hills, CA: Sage.
- Walker, L. E. (2016). *The battered woman syndrome*.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Walker, L. E. (1979). *The battered woman*. New York: Harper & Row.
- Warren, J., & Lanning, W. (1992). Sex role beliefs, control, and social

isolation of battered women. *Journal of Family Violence*, 7(1), 1-8.

Factors to Affect Battered Women's Decisions Going Back to the Abused Relationship: Focused on the Learned Helplessness, Social Support, and the Risk of Domestic Violence

Jung Hyun Hong, Hyun Jung Kwon, Sung In Yoon, Soo Jung Lee
Gyeonggi Western Sunflower Center, Kyonggi University, Gyeonggi
Nambu Provincial Police Agency, Kyongg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factors to affect the battered women's decision going back to the abused relationship. There must be more factors, but three factors were examined in this study, such as learned helplessness, social support, and violence risk. The respondents were 65 female battered women who visited shelters to avoid domestic viol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more the learned helplessness was, the greater the risk of domestic violence became. Also, the more severe the domestic violence was, the less likely the battered women could escape from the abused relationship. However, the effect by social support was not so significant.

In conclusion, this study attempted to confirm the relations among learned helplessness, social support, domestic violence level and a decision to terminate the abused relationship. This study can help to understand why battered women who experience severe domestic violence might stay home in spite of danger of their lives.

Key words: domestic violence, stay in abused relationship, learned helplessness, social support, the Spousal Assault Risk Appraisal Guide (SARA)